

## 토론토 행복한교회 (내가 만든 신)

2018 12 28



-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려면 우선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어야한다”

책을 읽는 시간 동안 이 책을 통해 많은 깨달음과 제 자신을 돌아볼 수있는 시간이였고, 우상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있는 시간이였다. 앞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떨쳐버리며 내 삶가운데 역사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삶으로 예배하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되길 기도한다.(박\*\* 자매)

- 이 책을 통해서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내안에 예수님께서서 그 모든것의 첫번째가 되기위해서는 죽는 날까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야 함을 깨달으며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딸이  
되길 기도합니다(전\*\* 집사).

- 그전에는 막연히 불교나 다른종교를 믿는게 이상숭배라고 생각했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우상들이 많았음을 알았습니다.  
이 책을 읽는동안 내안에 있던 우상들을 발견하며 나를 다시 볼수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주님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우상들을 제거하며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연\*\* 자매)

- 적당히 타협을 원하는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에게도 이 책을 빌려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김\*\* 성도)

- 꼼꼼 숨어있던 내 안에 우상은 가족과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의 인정이었고 나의 '잘남'이었습니다. 여전히 아직 내 안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은 우상들이 있지만 이 책은 나에게 내가 모시고 있던 우상들대신 예수그리스도를 보게하였고 의지하게 하였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토대로하여 더욱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 빠질렵니다. 감사드립니다.(정\*\* 형제)

- 내안에 나도 모르게 와서 자리잡고 왕 노릇 했던 많은 우상들을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고, 물리쳐야 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굳건히 계실 수 있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예배에 집중할 것 이며 말씀 으로 뿌리 내리면서 내 마음을 더이상은 마귀의 놀이터로 내어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합니다!!!(이\*\* 집사)

- 책 '내가 만든 신'을 읽으면서 우상에대해 더욱 깊이 알게되었고 내삶안에 우상이 많이 존재한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먼저가 되지 않고 이세상것들을 더욱 중요시여기며 살아가던 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주님을 이세상 무엇보다더 사랑해야하고 모든것보다 우선수위가 되어야한다는것도 느꼈습니다. 이책을 기반으로 말씀과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끝내기로 삶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든 내영광을 위해서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것이기에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것으로 바꾸기로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한층더 알아가는 좋은책이고 인생에 있어 굉장히 도움되는 책이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크리스찬으로써 우상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기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사람이 읽어 다음세대가 잘준비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임\*\* 학생)